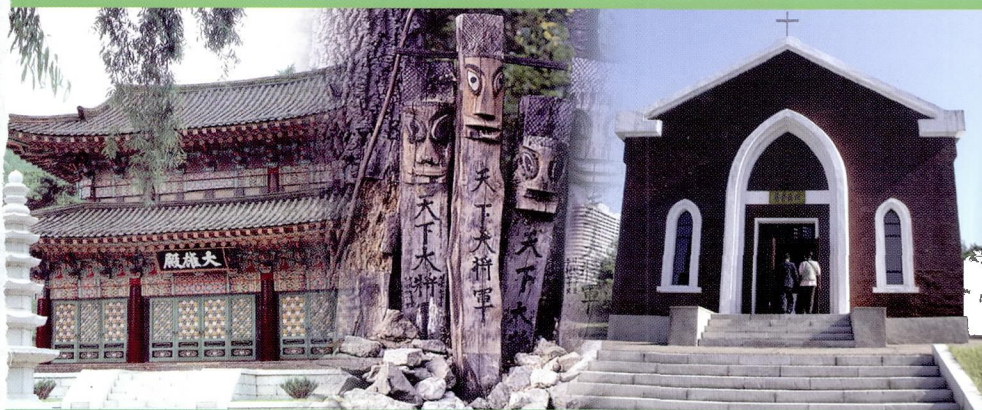


06-1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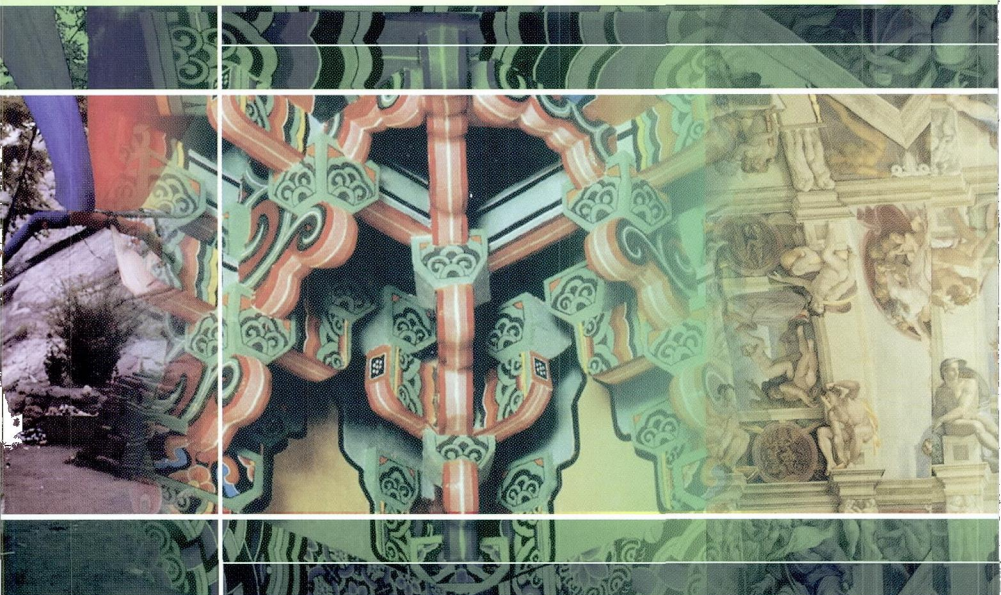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17**

북한의 종교 실상과 남북 종교교류 전망



+ 차례



I. 머리말 5

II. 북한의 종교 현황 9

- 1. 종교 관 11
- 2. 종교정책 17
- 3. 종교실태 28
 - 1) 개신교 30
 - ▶ 조선그리스도교연명 31
 - ▶ 공식교회 35
 - ▶ 가정교회(가정예배소) 38
 - 2) 불교 41
 - 3) 천주교 45

III. 남북한 종교교류 현황 49

- 1. 개신교 교류 현황 52
- 2. 불교 교류 현황 68
- 3. 천주교 교류 현황 79

IV. 맺음말 : 남북한 종교교류의 과제 89

참고문헌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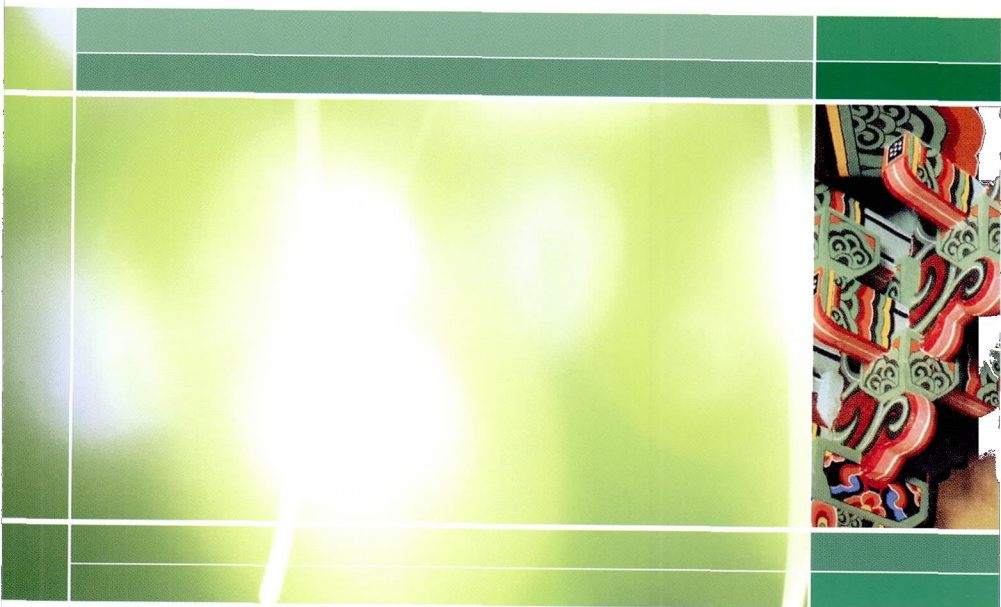
깊이보기

· 깊이보기 ① - 지하교회	39
· 깊이보기 ② - 북한의 불교행사	42
· 깊이보기 ③ - 토지개혁과 불교	44
· 깊이보기 ④ - 세계기독교협의회(WCC)와 한국교회	56
· 깊이보기 ⑤ - 3·1민족대회	64

표 · 사진

· 표 ① - 1981년 이후 북한의 종교용어 해석 변화 비교	13
· 표 ② - 북한헌법상 종교 관련 조문의 변천	27
· 사진 ① - 광복 직후 북한의 종교탄압장면	17
· 사진 ② - 파괴된 대동강철교위로 피난길에 나선 평양의 기독교인	19
· 사진 ③ - 송실대학 본관(평양)	33
· 사진 ④ - 봉수교회 개축장면	35
· 사진 ⑤ - 칠골교회 전경	36
· 사진 ⑥ - 교회에서의 예배장면	37
· 사진 ⑦ - 가정교회 예배장면	38
· 사진 ⑧ - 지하교회 예배장면	39
· 사진 ⑨ - 불교학원이 있는 광법사의 대웅전 전경	43
· 사진 ⑩ - 장충성당 전경	45
· 사진 ⑪ - 장충성당에서의 미사장면	46
· 사진 ⑫ - 금강산 신계사 복원 남북공동낙성법회장면	77
· 사진 ⑬ - 3·1민족대회 남북 공동미사장면(2003, 명동성당)	86

I. 머리말



I. 머리말

지금까지 남북한 주민들은 60여 년이 넘게 분단된 채 오랜 세월을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와 체제 속에서 살아온 탓에 가치관과 문화의식에 있어 심각한 이질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교류영역이 바로 정신적·심리적으로 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남북한 종교교류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유지의 사활이 걸려 있는 유일 사상체제에 흠집을 낼 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으로 인해 전면적인 종교개방을 지극히 꺼리고 있는 입장

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북한 종교교류는 당연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에도 1945년 광복 이전에는, 비록 일제 식민지 하에 있기는 했지만, 개신교·천주교·불교·천도교 등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개신교와 천주교는 남한보다 먼저 전래되어 교세도 더 컸다.

그러나 광복 이후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종교활동이 근본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었고, 급기야 종교말살을 위한 반종교정책으로 인해 1950년대 중반 경에는 북한의 모든 종교가 사라지거나 지하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60년대에는 북한사회에서 아예 종교 자체가 모습을 감추기도 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초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종교정책이 변화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는 해외교포 종교인들의 빈번한 방북 영향으로 북한사회 내에 종교시설이 건립되거나 종교인 양성기관이 부활되는 등 종교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변화가 수반되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극심한 식량난에 따른 구

호물자 지원 등을 계기로 남한의 종교단체와 접촉이 더욱 빈번해지면서 북한 당국이 종교계 인사들을 초청하고 남북한 공동예배·동시법회·공동미사 등 종교의식 개최를 허용하는 등 종교정책에 있어 질적인 변화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당국의 종교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가 북한의 개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종교교류의 활성화는 결코 소홀히 취급될 수 없는 남북 교류영역에 해당한다.

비록 아직은 북한이 폐쇄적이며 종교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하지만, 남북한 종교교류 활성화와 함께 종교에 대한 수용 폭이 넓어지기만 한다면 북한의 개방은 좀 더 빨라질 것이다.

남북 종교교류는 대체로 개신교와 불교, 그리고 천주교 중심으로 진행돼 오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천도교와 대종교, 원불교 등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여기서는 편의상 한국의 3대 종교에 해당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에 한해서 다루고자 한다.

II. 북한의 종교 현황



Ⅱ. 북한의 종교 현황

남북한 종교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먼저 북한의 종교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해야만 그 시책오를 줄이며, 북한의 종교상황을 더욱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북한의 종교관, 종교정책, 종교실태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종교 관

북한의 1973년판 『정치사전』은 종교에 대한 김 일성의 교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을 기만하여 착취억압하는 도구로 리용되었으며, 또 근래에 들어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후진국가 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리용되었다”

한마디로 북한은 한동안 종교를 ‘지배계급의 착취도구’, ‘제국주의적 침략도구’로 인식해왔다. 즉 종교는 지배계급이 대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급의식과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는 도구이며,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침탈을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철저한 사상교육을 통해 종교를 말살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1980년대 중반까지 대내적으로 종교 제거정책을 시행하는 근거가 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종교를 계급적 관점에서 무조건 매도해오던 기존의 정책에서 다소 탈피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부터는 세계질서가 급격하게 변하고 남북 종교교류가 빈번해지자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나름의 ‘주체적’ 해석을 내리기 시작한다.

실제로 1992년에 출판된 『조선말대사전』에서는 종교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크게 완화하고 비교적 객관적인 설명을 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종교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간의 지향과 념원을 환상적으로 반영하여 신성시하며 받들어 모시는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또는 그 믿음을 설교하는 교리에 기초하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특별히 부정적인 해설 없이 “‘하느님’의 아들로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그

〈표 ①〉 1981년 이후 북한의 종교용어 해석 변화 비교

구분	현대조선말사전 (1981년판)	조선말대사전 (1992년판)	조선대백과사전 (2000년판)
기독교	넓은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과 착취를 가리우고 합리화하며 허황한 천당을 미끼로 하여 지배계급에게 순종할 것을 설교	교회의 주되는 이념은 평등과 박애이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잘 지키면 천당에 간다고 설교	신의 아들이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세우고 그에 의한 인류의 구제를 설교하는 종교
교회	종교의 탈을 쓰고 인민들을 착취하도록 반동적 사상 독소를 퍼뜨리는 거점의 하나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 의식을 하고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믿도록 선전하기 위하여 지은 건물	종교를 믿는 신자들이 예배, 세례, 성찬과 같은 예식을 진행하는 집합 장소
성경	예수교의 허위적이며 기만적인 교리를 적은 책	주로 기독교에서 종교의 교리를 적은 책	—
불교	죽어서 극락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에서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디어야 한다는 노예적인 굴종사상과 무저항주의를 설교	인간을 고뇌에서 해방하며 자비심을 베푸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속세를 떠나 도를 잘 닦으면 극락세계에 이른다고 설교	고통이 인간의 삶의 본질이므로 온갖 집착을 버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지향을 억제하며 정신수양을 통해 모든 것을 해탈하고 열반에 도달해야 한다고 설교

※ 출처: 통일부, 『2004 북한개요』 (서울: 통일부, 2003), 433쪽.

리스도의 교훈을 잘 지키면 ‘천당’에 간다는 것을 설교한다. 교리의 주되는 리념은 ‘평등’과 ‘박애’이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식 종교관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견해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시기 인류력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세계관은 종교적 세계관이었다. 종교적 세계관은 인류 사회 발전의 초기 사람들의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발생한 세계관으로서 그것은 세상만물을 좌우하는 절대적 존재가 ‘신’이라고 보고 이 ‘신’에 의하여 세계가 창조되고 지배되며 사람의 운명까지도 좌우된다고 보는 비과학적인 견해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한마디로 주체사상이 인식하는 종교 현상이란 미개한 사회에서나 나타나는 비과학적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주체사상은 종교의 본질에 관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부정적 해석에 비판을 가하면서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오히려 종교는 그 발생

의 동기와 목적, 교리 면에서 볼 때는 객관세계보다는 압박과 착취, 예속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본성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나왔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예컨대, 북한의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연구소 소장 박승덕은 “... 구약의 기본사상은 창세기에 나오는 우주 창조신앙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전개되는 애굽의 통치로부터의 이스라엘 민족의 탈출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도 신론이 기초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인간론이며 그 특징은 인생관화된 인간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기독교의 본질은 세계관에 서가 아니라 압제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유와 평등을 념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식의 삶의 길을 제시하는 인생관이라는 데서 그 본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체사상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리해로부터 과학적 세계관이나 비과학적 세계관이나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간구원, 인간해방을 위한 삶과 투쟁의 공통된 방도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기독교와의 대화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적 구원을 중심으로 삼는 기독교 신학을 거부하고 타자(他者)에 의한 예속으로부터의 해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북한은 주체사상은 창조적이고 자주적이고 의식적인 ‘사람’ - 북한이 주체사상을 통해 추구하는 이상형의 사람이란 집단주의적 관점의 ‘대중’(mass)을 의미한다 - 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를 찬양하는 대신 종교, 특히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사람’ - ‘개인’(individual)을 의미한다 - 은 신에게 의지한다는 점에서 문제시한다.

1997년 2월 18일자 『로동신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는 자주성을 망각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며, 자기 운명을 하느님이나 남의 힘에 의존하여 사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노예적 굴종관념에 포로되어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은 그 좋은 예에 속한다.

2. 종교정책

북한의 종교정책은 대내 정치적 목적과 대남 및 대외 전략의 필요성에 따라 직접적인 구속을 받아왔다. 김일성은 정권수립 초기에 종교가 이념투쟁과 체제건설을 위한 반혁명적 요소 제거의 대상이었지만, 자신의 정권을 공고화하고 반제반봉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와 이용가치에 따라 선별적인 종교정책을 추진하였다.



사진 ①-광복 직후 북한의 종교탄압장면

김일성은 당시 북한 사회에서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세력이 아직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에 동조하는 종교인들과의 연합전선 형성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1947년 결성된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일제 식민 잔재와 봉건적 질서 타파를 위해 토지개혁을 비롯한 혁신적인 반봉건적 사회·경제개혁을 단행했다.

지지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이러한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동조세력이 필요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당시 중요한 사회세력의 하나였던 종교계의 지지는 필수적이었다.

이에 따라 김일성 정권에 대해 호의적인 종교세력은 이용하고, 비판적인 종교세력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탄압을 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공산주의정권은 1948년 9월 9일에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공민은 신앙 및 종교의식 거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문화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선전문구에 불과했으며, 실제로는 반종교정책이 공공연히 행해졌는 바, 북한 당국은 공산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종교를 반동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매도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인민정권의 정치적 입장에 동조하는 종교인들은 통일전선 차원에서 만들어진 종교단체들에게 가입하였고, 반대하는 종교인들은 대거 월남을 결행하였다.

심지어 1950년 북한 형법에서는 “종교단체에 기부를 강요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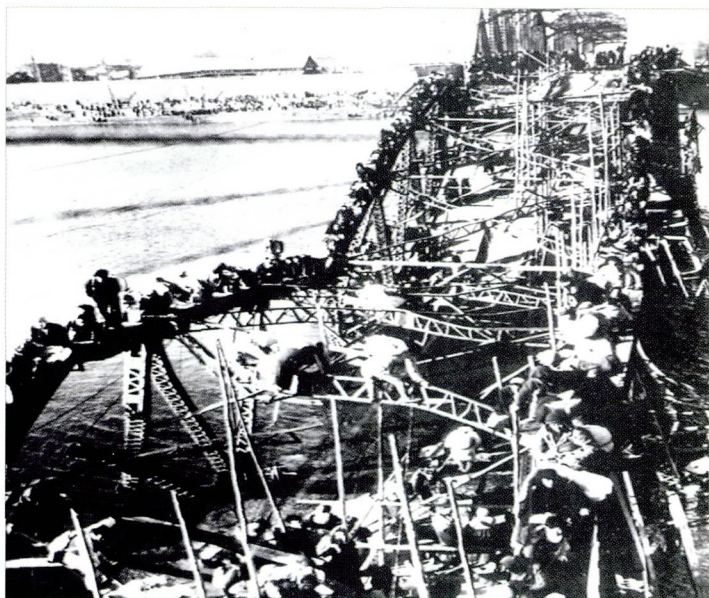


사진 ②-파괴된 대동강철교위로 피난길에 나선 평양의 기독교인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종교행위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더욱이 6·25전쟁의 참상으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으로 동일시되는 경향이 일반화되어 북한 사회에서 종교 자체가 존립근거를 상실하는 상황이 되고 만다.

엄청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의 반미 감정은 전후에 그 자체로 반종교 선전기능을 훌륭히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활용, 북한 당국은 기독교에 대해 6·25전쟁 때 ‘철천지 원수’ 미군을 위해 일하는 등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이유로 가혹한 탄압을 정당화하였다.

마찬가지로 여타 종교에 대해서도 사회주의 혁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철저히 탄압했다. 그 결과 1950년대 중반 경에는 모든 종교단체와 종교의식이 사라지거나 지하화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1958년에는 노동당이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사상검토사업을 벌였고, 1959년에는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해야 하는가’라는 반종

교지침서를 내놓고 노골적으로 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 전역에 걸쳐 모든 종교 활동은 자취를 감추고 만다. 이 같은 북한 사회의 무종교 현상은 196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다.

북한은 1970년대에 접어들어 한반도 주변에서 데탕트 기류가 고조되고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으로 남북대화가 시작되자, 전략적 필요에 따라 조선기독교도연맹·조선불교도연맹 등 종교단체들을 부활시켜 이들을 대남 평화선전 또는 국제사회에서의 친북 지지세력 규합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당시 북한에서는 종교가 북한 사회 내부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힘과 요소를 모두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종교를 상황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모양대로 활용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북한 당국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972년 개정헌법에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동시에 명기하였다. 그러나 대내적 차원에서는 ‘반종교 선전의 자유’가 여전히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적인 근거로 작용했다.

이 때부터 북한은 ‘신앙의 자유’를 대외적으로 내세우면서 국제적인 종교기구, 즉 세계기독교협의회(WCC), 아세아기독교평화회의(ACPC), 세계기독교평화회의(WCPC), 아시아불교도평화회의(ABCP) 등과 접촉을 시도하는 한편, 우회적인 방법으로 남한의 종교계에 통일전선 구축을 모색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소련 및 동구권의 개혁·개방 등 세계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종교활동 규제완화를 시도하는 등 보다 유화적인 종교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1981년부터 해외기독교지도자들의 방북이 가시화되었으며, 정례적인 모임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자 간의 대화’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1983년에는 조선기독교도연맹이 신약성서와 찬송가를 발행한 데 이어 1984년에는 구약성서를 발간했다. 1986년에는 조선불교도연맹이 제15차 세계불교도우의회(WFB)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기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인식한 기존의 정책을 다소

완화하여 기독교의 긍정적인 측면도 드러내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다. 기독교는 원래부터 ‘인민의 아편’이었던 것이 아니라, 발전과정에서 특정 시기에 인민을 착취하고 지배계급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후 북한은 종교를 무조건 비판하는 입장에서 벗어나게 되며, 합작과 연합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가운데 남한 종교인들의 방북은 물론 봉수교회와 장충성당 등 종교시설의 건립을 허용하는 등 비록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전에 비해 진전된 종교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또한 제한된 소수의 ‘신자들’만의 참가이기는 하였지만, 공인된 교회와 성당, 그리고 사찰에서 공식적인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을 허용했다. 예컨대, 1988년 5월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주관으로 묘향산 보현사에서 처음으로 석가탄신일 기념법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매년 석탄절, 열반절, 성도절 등 주요 절기의 기념법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산하에 중

교학과, 즉 불교·기독교·천주교·천도교·이슬람교 등 5개 학과-지금은 정교회학과도 설치하고 있다-를 개설했고, 양강도 삼수군 중흥사에는 승려교육기관인 불교학원을 설치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종교지도자 양성체제를 마련하였다. 같은 해 남한 및 국제 종교단체들과의 교류를 위해 조선종교인협의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에는 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 체제 붕괴 여파로 위기를 느낀 나머지 종교에 대한 결 전향적인 변화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체제 방어적 차원에서 종교교류에 따른 외부 사조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했다.

우선 북한은 1992년 4월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면서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 없다”(제68조)고 명시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전 헌법의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삭제한 대신, 신앙의 자유

를 종교건물 축조와 종교의식 거행이라는 일정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종교적 배경을 가진 남한 내 통일운동가와 재외동포들과의 통일운동을 고려하면서도 북한체제에 미치는 후유증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다분히 추상적인 데다 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해 여전히 종교 탄압을 합법화하는 구실로 작용하고 있다.

1995년에는 남한 및 서방 각국의 종교단체들과 더욱 빈번한 접촉을 시도했는데, 이는 홍수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되면서 인도적 지원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1998년 9월 5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는 헌법 제68조를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

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 없다”라고 개정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92년 개정헌법의 같은 조항에서 ‘누구든지’를 삭제했다는 점이다.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 결과 채택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는 남한의 대표적인 7대 종단이 민간통일운동단체인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와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와 함께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를 구성하여 남북한 민간교류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증진시켜나가는 방식으로 북한 당국의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종교는 아직도 체제종교로 기능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에 부분적이거나 종교 시설이 들어서고, 간혹 종교 의식이 거행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의 종교정책이 다소나마 변화하게 된 것은 남북한 간의 종교 교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다.

〈표 ②〉 북한헌법상 종교 관련 조문의 변천

제정 및 개정 연도	종교관련 조문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헌법	제2장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14조 공민은 신앙 및 종교의식 거행의 자유를 가진다.
1972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4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54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
1992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199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 보충/ 1998.9.5)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 없다.

※ 출처: <http://www.cornerstone.or.kr>

3. 종교실태

광복 전 북한지역에는 개신교, 천주교 등이 남한보다 먼저 전파되는 등 종교가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광복과 함께 공산주의 세력이 집권하면서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 공산정권 수립에 기여하는 한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공존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6·25전쟁 중에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월남한 데다 전쟁 이후 혹독한 종교 탄압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종교는 사실상 거의 소멸하고 말았다.

그렇지만, 1970년대 이후 국제환경의 변화와 함께 북한 당국은 대외선전과 대남 통일전선의 구축에 이용하고자 종교단체들의 활동을 재개했으며,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동일한 목적에서 교회와 성당을 건립하고, 불교 사찰을 복원하거나 보수하는 등 가시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 왔다.

현재 북한의 종교단체들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

일전선부 제6과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교직자들은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카톨릭협회 등의 종교연맹 소속으로 해당 연맹으로부터 월급을 받는다.



북한의 종교 실상과
남북 종교교류 전망

(1) 개신교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개신교 활동은 대외적으로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1970년대 초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대외선전 및 대남 통일선전 차원에서 개신교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물론 북한의 개신교 조직이 체제 영합적인, 위장된 정치조직이며, 아직은 체제의 속성상 당과 국가의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남북 종교교류의 여파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도 일부 감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개신교 인구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강영섭 위원장이 2000년 12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제7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남북 기독교회의’에 참석, 목사 30명과 교직자 300명이 있으며, 기독교 신자는 1만 2천 343명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현재로서는 다만 당시의 목사, 교직자, 신도 수에 비해 각각 조금씩 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조선그리스도교연맹

현재 북한의 개신교는 공식적으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 속해 있다. 이 연맹은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카톨릭협회, 조선천도교중앙위원회와 더불어 종교인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북한은 교회를 장악하려는 목적에서 해방 직후인 1946년 11월 28일에 평양신학교 출신으로 김일성의 외조부 강돈욱의 사촌인 강양욱 목사를 앞세워 '북조선기독교도연맹'을 창설했다.

이 단체는 사실상 노동당의 하부기관의 성격을 지닌 종교단체로 출발했으며, 활동의 주된 목적은 개신교 신도들의 단합과 연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교회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 연맹은 1959년까지 존속하였으나, 북한에서 기독교가 말살된 이후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다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으로 남북대화가 시

작되면서 북한 당국은 남한의 종교단체와의 접촉을 위하여 재등장시켰으며, 1974년부터는 ‘조선기독교도연맹’으로 명칭을 변경시켰다.

이후 이 단체는 남한의 종교 단체와의 접촉창구로서의 역할과 함께 해외 거주 반한 교포 및 단체 포섭, 그리고 국제 기독교 단체와의 유대강화에 주력해 왔다. 특히 기회 있을 때마다 남북 기독교인들 간의 회담을 제의하거나 국내 종교인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을 부추기는데 적극 이용되어 왔다. 1999년 2월에는 현재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으로 개칭되었다.

북한 당국은 이 연맹이 ‘초교파적’이고 “민주전선의 일원으로서 기독교자들의 권익 옹호와 새 조국 건설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당의 대남사업부에 속해 있으며 당의 지침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속성에 따라 연맹은 남한의 교회 및 기독교단체, 그리고 해외 한인교회 및 기독교단체와의 유대 강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지지확보뿐만 아니라, 심각한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이들 교회 및 단체들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연맹은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조직으로는 총회, 중앙위원회, 서기장 등이 있으며, 연맹의 실질적인 사무는 선전부, 국제부, 조직부, 경리부 등 네 개의 부서로 이루어진 사무국이 담당하고 서기장이 사무를 총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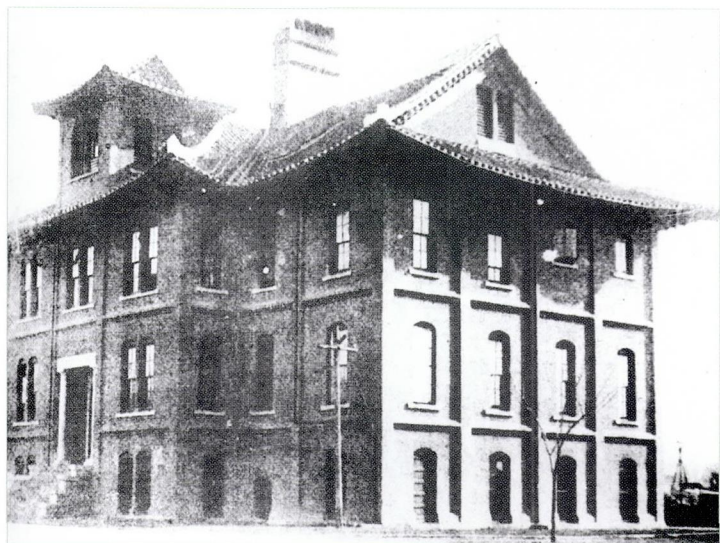


사진 ③-송실대학 본관(평양)

산하에는 1972년부터 재개된 평양신학원(평양신학교 후신)이 운영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3년제였으나, 2000년 9월에 5년 학제로 개편되었다.

평양신학원을 졸업한 신학도는 대체로 가정예배소에서 전도사(책임지도원)로 일정 기간 봉사해야 하며, 목사 안수를 받으면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소속 교직자로서 연맹 사무부서나 봉수교회 및 칠골교회, 그리고 가정예배소 등지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북한에는 1972년부터 3년제의 조선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3년마다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이들이 졸업한 후에 다시 학생들을 모집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공식교회

북한에는 해방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2,850여 개에 달했으나, 현재 북한의 공식교회는 평양의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2개뿐이다.

봉수교회는 1988년 9월에 평양시 만경대구역 건



사진 ④-봉수교회 개축장면

국동 (옛 봉수동) 보통강변에 세워졌는데, 평소 출석인원은 300여 명이며 그 중 60%가 여성신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칠골교회는 김일성이 1989년에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어머니 강반석의 신앙을 기념하여 칠골동의 옛 하리교회터에 세운 것인데, 예배 수용규모는 150석으로, 출석 교인 수는 1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 ⑤-칠골교회 전경

한편 2003년 11월에는 남측 교회의 지원으로 남북이 합의하여 민간교회인 평양제일교회 건립을 추진, 2005년에 200명 규모의 예배처소를 준공했다.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는 목사, 부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가 있으며, 성가대와 부인전도회 등을 갖추고 있다.

예배과정은 남측과 유사하나, 목사의 설교 중간 중간에 수령에 대한 은혜와 배려를 강조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 ⑥-교회에서의 예배장면

▶ 가정교회(가정예배소)

북한에는 공식교회 이외에도 10~15명 단위로 모여 한국의 구역예배처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 가정교회는 지하교회와는 엄연히 다르다. 북측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현재 북한 전역에 걸쳐 800여 곳에 산재하고 있으며, 이 중 33곳이 평양에 소재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⑦-가정교회 예배 장면

깊이보기 ①

지하교회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공식교회나 가정교회와는 달리 들판, 다락, 산속, 토굴, 집안의 은밀한 장소 등지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신앙공동체를 말한다.

월드워치리스트(WWL)는 이미 1996년 7월에 북한에는 14만 명의 지하교회 신자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이후에 극심한 식량난으로 탈북했던 북한사람들 가운데 상당 수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일부가 북한으로 되돌아가 지하교회 구축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재는 1996년에 비해 지하교회 신자수가 다소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지하교회가 일단 당국에 의해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최고 사형에 이르기까지 가혹한 처벌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하교회 신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사진 ⑧-지하교회 예배 장면

전국 각지의 가정교회는 북한체제의 속성상 당과 국가의 엄격한 규제 하에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신자들은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2) 불 교

북한의 불교는 조계종을 표방하고 있으며, 승려는 머리를 기르고 절에 상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 처승에 해당한다. 승려는 불교학원에서 양성되고 있으며, 현재 300여 명이 각지에 산재하고 있는 60개 사찰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월급은 조선불교도연맹으로부터 받는다. 신도는 약 1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찰은 종교적 의미와 기능보다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더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석탄절, 열반절, 성도절 등 불교 기념일에는 예불이 집전되고 법회도 열리기는 하지만, 신자들의 자발적인 신앙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현재 북한의 불교 관련 행사를 총괄하는 기구는 노동당의 통제를 받는 조선불교도연맹인데, 1945년 12월 26일에 창립된 '북조선불교도연맹'을 모

체로 하고 있다. 이 연맹은 1946년의 토지개혁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더욱이 1958년부터 종교에 대한 의식구조 개조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사찰이 관광지화 내지 휴양지화됨에 따라 1965년에 폐쇄되고 말았다.

1970년대 들어 데탕트 무드와 함께 남북대화가 시작되자, 이 연맹은 1972년부터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대외 활동을 재개했다.

깊이보기 ②

북한의 불교행사

북한은 1988년 5월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40년 만에 묘향산 보현사에서 석탄절 기념법회를 개최한 이후 매년 각 사찰에서 불교의 3대 기념일인 열반절(음력 2월 15일), 석탄절(음력 4월 8일), 성도절(음력 12월 8일)에 조선불교도연맹 주관 하에 기념법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찰이 법회 등 종교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는 않는다.

시국의 변화에 따라 조국통일기원법회가 열리거나 남북 인사가 방북할 경우 합동법회가 열리는 정도다.

석가탄신일을 맞이해서는 기념법회를 하고 연등을 달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데, 개인적인 소원을 비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영생’이나 ‘충성’, ‘강성대국’, ‘수령결사옹위’ 등 정치적 내용의 글귀가 많다.

최근에 들어서는 한국 및 해외 종교단체에 공개·비공개적으로 원조를 요청하는 한편, 원조물품의 수령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60여 개의 사찰들은 승려가 관리하는 조선불교도연맹 소속의 사찰과 남한의 문화재관리국에 해당하는 문화유물총국이 문화재로 관리하는 사찰로 구분되는데, 그 중 1/3 정도가 조선불교도연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화유물총국에 소속된 사찰에는 승려가 없고 관리인만 상주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신도들이 진정



사진 ⑨-불교학원이 있는 광법사의 대웅전 전경

한 종교적 구도 목적에서 찾아 불공을 드릴 수 있는 사찰이 거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의 승려 배출 교육기관인 불교학원은 1989년에 김일성의 지시로 양강도 삼수군 중흥사에 설립되었으나, 1991년 2월 평양 소재의 광법사가 복원되면서 이 곳으로 이전되었다. 교육기간은 3년 과정으로 매년 30여 명을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신도의 대부분은 당원 신분이며, 당국으로부터 허락받은 사람들에게 한해서 사찰 출입이 허용된다고 한다. 사찰에서 행해지는 설법은 주체사상과 연관된 내용이 많다고 한다.

깊이보기 ③

토지개혁과 불교

1946년에 실시된 토지개혁으로 인해 각지의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몰수되었는데, 이는 북한 불교의 경제적 토대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신도들의 불공 및 시주활동을 금지시키고 승려들에 대해서는 “노동을 앓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강령에 의거해 배급을 중단시킴으로써 승려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승려가 없는 사찰은 자연히 폐허가 되기 시작했다.

(3) 천주교

해방 당시 북한 지역의 천주교 교구는 평양교구, 함흥교구, 덕원교구 등 3개 교구와 50여 개의 성당 및 수도원이 있었고 신도수도 5만여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남북 분단 후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천주교는 거의 소멸되고 말았다.



사진 ⑩-장충성당 전경

바티칸 교황청은 남한의 주교를 평양교구장과 함흥교구장 서리에 임명함으로써 북한 지역의 교구에 대한 관할권을 남한 측 천주교 교구에 위임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천주교회는 당·국가의 개입과 통제 하에 있으며, 전국적으로 3천명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공식 성당으로는 1988년 10월에 건축된 장충성당이 있는데, 이 곳에는 매주



사진 ⑪-장충성당에서의 미사장면

일요일마다 100~200명의 신자들이 모여 미사를 드리고 있다. 미사에서 행해지는 설교는 기독교 교리 해설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반미 선전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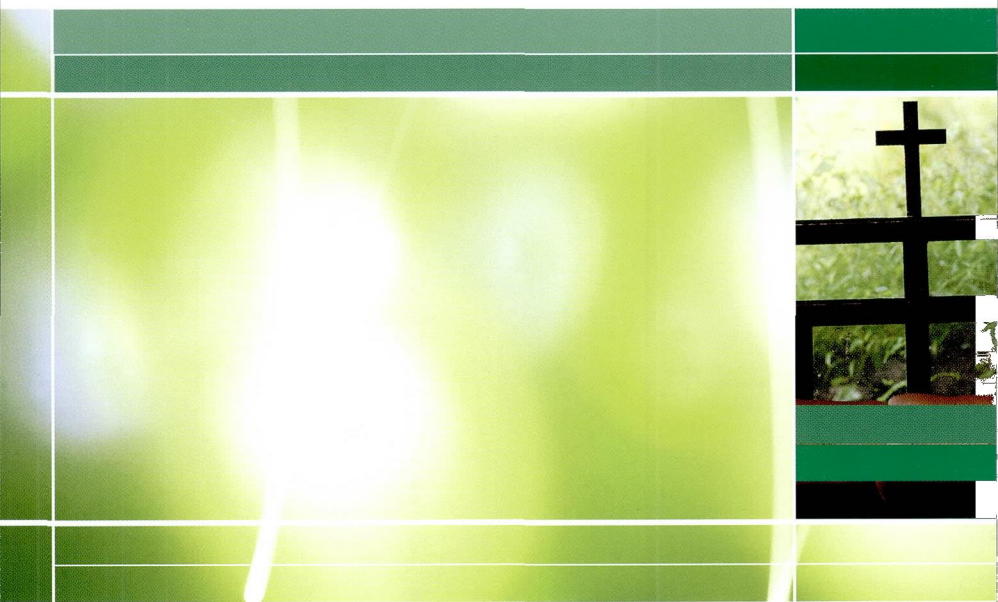
북한의 천주교를 대표하는 단체는 조선카톨릭교 협회인데, 1988년 6월 30일 결성된 ‘조선천주교인협회’가 그 전신이다. 당시 결성배경에 대해 북한은 “과거 천주교인들의 단체가 없음으로 하여 천주교인들을 대변하는 문제와 각국의 천주교인 및 단체와 연대하고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제한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협회는 1999년 6월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교황청은 북한지역에 교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협회는 천주교 신도회로 공인받지 못하고 있다.

주제가 있는 통일 문제 강좌 17

북한의 종교 실상과 남북 종교교류 전망

Ⅲ. 남북한 종교교류 현황



Ⅲ. 남북한 종교교류 현황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협력은 분단 이후 지속되어 온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 중에서도 남북의 신뢰회복을 조성하는 데 있어, 그것이 특별히 정신적·심리적 동질성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종교교류 만큼 효과적인 분야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단체가 남한에서는 자율적인 시민사회 영역에 속하지만, 사회주의체제인 북한에서는 철저히 당·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

서 남북 종교교류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종교단체는 공동 종교 행사 개최, 종교시설 건립 및 개·보수 외에도 그 성격상 구제 차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같은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꾸준히 교류협력을 진척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 당국의 종교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는 남북 종교교류의 진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어제와 오늘의 남북한의 종교교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1. 개신교 교류 현황

4·19혁명으로 탄생한 민주당 정부가 무력통일 노선을 포기하자, 이에 편승하여 시민사회 내에서도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중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교회도 어떻게 민족분단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1972년에 7·4공동성명이 발표되자, 개신교계에서는 분단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화해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자각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평화통일을 향한 한국교회의 노력은 초기에는 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계열의 진보적 신학자들과 청년학생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1970년대 초 데탕트 분위기가 도래하자 북한 역시 남한 내 민주화 사건과 관련한 대남 비난성명과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대남활동을 적극적으로 전

개하면서 개신교를 적극 이용하고자 조선기독교도연맹을 내세웠다. 예컨대, 조선기독교도연맹이 1972년 9월에 남북한 그리스도인 직접접촉을 공식 제안한 것은 그 좋은 예에 해당한다.

북한은 1974년에 들어 대외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선전함은 물론, 우회적으로 남한의 정치상황을 알리고 그 문제에 대한 세계기독교협의회(WCC)의 지지를 얻고자 조선기독교도연맹과 WCC의 접촉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조선기독교도연맹은 7월 초에 제네바 북한유엔대표부를 통해 WCC 본부에 접촉과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서신을 전달했다. 그러나 WCC는 북한의 정확한 기독교 교인 수, 성직자의 실제 여부, 각종 기독교 통계 등을 면밀히 조사한 다음 가입을 고려하겠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북한의 WCC 가입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조선기독교도연맹은 1975년 1월에는 인도 코타얌(Kottayam)에서 개최된 제1차 아세아기독교평화회의(ACPC) 총회에, 1976년 11월에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부르노에서 열린 세계기독교평화회의

(WCPC) 정치·경제토론회에 각각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반경을 더욱 넓히고자 했다.

북한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악화된 남한정세를 적극 활용하면서 남북 개신교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특히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한 이후에는 이를 통해 남한의 개신교계에 통일운동을 부추기고자 했다.

1981년 11월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개최된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 간의 대화’는 남북 종교교류의 시발점이었다. 당시 북한 측은 조선기독교도연맹의 인사들을 파견하였으나 실질적인 지휘는 일행으로 함께 참가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담당하였다.

당시 채택된 공동성명과 ‘해내외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볼 때 주로 논의된 내용은 실질적인 남북 기독교교류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북측의 대남 정치선전이 주를 이루었다.

1982년 12월에는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조국통

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자 간의 대화' 제2차 모임이 개최되었다.

1984년 10월 말에는 WCC 국제문제위원회가 일본의 도쿄 근처에 있는 도잔소 국제센터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정의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조선기독교도연맹이 불참한 가운데 20개국 65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북한 기독교공동체와 직접 접촉하도록 노력할 것을 각 회원국 교회들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북한교회와 서방교회 간, 남북한 교회 간 개신교교류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1985년 11월에는 국제사회에 북한 종교단체의 실상을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WCC 국제문제위원회의 관계자들이 조선기독교도연맹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초청으로 처음으로 북한을 공식 방문하였다. 이들은 당시 조선기독교도연맹 임원들과 함께 평양 시내 아파트에 있는 가정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이처럼 조선기독교도연맹과 WCC의 관계가 원활해지자, WCC는 1986년 9월에 스위스 글리온

깊이보기 ④

세계기독교협의회(WCC)와 한국교회

WCC는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의 동향을 접속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창립총회 때부터 교회 지도자들을 파견하여 관계를 맺어왔다. 한국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3개 교단이 가입하고 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WCC는 북한의 남침을 규탄하고,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의 독립실현을 촉구하는 한편, 전쟁 난민 구호사업에도 적극 참여했다.

WCC가 세계교회 일치운동의 주체로 부각되고 에큐메니즘 신학이 한국에 본격 도입되자, 1950년대에 에큐메니칼운동의 성격을 의심하고 이를 배격하고자 하는 복음주의협회가 대두되었다.

이로써 한국교회 전체는 WCC의 에큐메니즘 노선을 찬성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이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복음주의협회를 중심으로 격렬히 대립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세계적 조류가 평화공존으로 기울자 반에큐메니칼 세력은 한국에서도 쇠퇴했다. 현재 WCC는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운동과 진보적 사회선교 활동을 지원하는 후원자로서, 또한 최근에는 북한 선교의 중재자 역할도 하고 있다.

(Glion)에서 개최된 ‘평화에 대한 기독교적 관심의 성서적·신학적 근거’ 모임에 북한 대표단을 초청,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교회 지도자들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여기에는 6명의 KNCC 관계자들과 5명의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들이 초청되었다.

이 글리온회의에 참석한 남북한 교회 지도자들은 공동으로 성만찬을 집행하는 등 예배 성격의 모임을 가지기도 했다. 같은 달, WCPC 대표단이 조선기독교도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다.

1988년 2월에는 서울 연동교회에서 KNCC가 제 37차 정기총회를 열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인도주의, 민중 우선이라는 ‘통일의 5대 원칙’이 담긴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88통일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 선언으로 인해 한국의 진보성향의 교회와 보수성향의 교회 간에 논쟁이 유발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로 제2차 글리온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남한에서 11명, 북한에서 7명, 그리고 WCC측

22명 등 모두 40명이 참석하여, 북한측이 이 회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지만, 개회예배, 폐회예배 겸 성찬예식, 그리고 성경공부와 경건의 시간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으며, 남북교회의 이름으로 1995년을 '통일희년'으로 선포하고 해마다 8·15 광복절 직전 일요일을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동기도일'로 정하였다.

1990년 7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조국의 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인 동경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는 쌍방의 화해와 공존의 자세 견지, 교류 확대를 위한 제반 장애 철폐, 군축과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미군철수 및 핵무기 철거, 불가침선언 채택, 선교협력을 위한 남북교회의 왕래 노력 등의 내용을 담은 '평화통일 희년을 향한 동경회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3차 글리온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서는 공동성서연구, 공동기도문 작성, 공동선언문 채택, 북한 측의 교회 실태보고 등 비교적 풍부하고 알찬 내용이 다루어졌다.

특히 북한 측은 실태 보고를 통해 종교와 기도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회의에서는 또 남북 간에 '통일희년'을 준비하기 위한 공동사업계획의 합의가 있었다.

1991년 5월에는 뉴욕 스토이포인트에서 '새 민족공동체형성을 위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남북교회 대표들 간의 만남이 있었으며, 7월에는 동경에서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를 위한 기독교자들의 역할'이라는 주제 하에 '평화 통일선교 기독교자회의'가, 10월에는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1995년 희년 사업의 방향 및 연대와 일치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 하에 희년 5개년 공동사업 실무 협의가 열렸다.

1992년 1월에는 희년사업 실무협의회차 KNCC의 총무가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2월에는 조선기독교도연맹의 대표단 일행이 KNCC 제41차 정기총회에 참석하려 하였으나 무산되는 일이 발생했다.

1995년 3월에는 일본 교토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4차 기독교 국제협의회'가, 7월에는 미국의 신시내티에서 '미주평화통일 희년대회'가 각각 개최되었다.

1996년에는 1월에 마카오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연대를 위한 국제 에큐메니칼 협의회’가, 2월에 베이징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회의’가 개최되었다.

1997년 2월에는 남한 개신교계가 북한의 식량난을 덜기 위하여 15개 교단과 10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기독교북한동포후원연합회를 결성하였으며, 1998년 3월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통일과 나눔 남북교회협의회’가 성사되었다.

1999년에는 KNCC, 감리교 서부연회 등이 남북종교인 교류협력방안을 협의할 목적 등으로 접촉하였으며, 같은 해 4월에 열린 ‘종교인 베이징 평화모임’에서는 남북교회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베이징 선언문’을 채택했다.

같은 해 5월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서부연회가 조선기독교도연맹 측과 평양에 제3의 교회를 설립하는 문제와 평양신학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북했으며, 이후인 6월에는 중국 연변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북한 민족화해협의회가 대북 식량지원문제를 협의하던 중 서해교전 여파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대희년민족통일선교대회 준비위원회가 평양을 방문, 남북한이 봉수교회에서 2000년 부활절예배를 공동으로 드릴 것을 합의하였다.

2000년 2월에는 KNCC 회원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북한평화통일선교위원회와 한국기독교 장로회 평화통일위원회가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산하의 가정교회 선교를 위해 TVCR 200대를 제공하였다.

같은 해 4월 말에는 개신교 단체인 대희년민족통일선교대회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는데, 방북 기간 중인 4월 23일 평양의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합동 부활절 예배를 올렸다.

한편 기독교대한감리회 서부연회는 5월에 평양신학원 재개원 사업관계로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으며, 그 결과 2001년부터 평양신학원 관련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01년 3월 말에는 KNCC를 포함한 7대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금강산에서 조선종교인협의회와 ‘종교인평화모임’을 개최,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이며 평화적으로 해결해가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내용의 공동합의문과 일본의 역사왜곡문제를 비난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모임에서 양측은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서울·평양 남북공동행사 개최문제로 협의했다.

또한 같은 해 6월에는 KNCC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독일교회의 날’ 행사에 공동참석하여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예배’를 올리고, 제5차 글리온회의를 2002년 상반기에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8월에는 평양 8·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남측 신도 36명이 북측 신도 40여 명과 함께 봉수교회에서 공동예배를 드렸다.

12월에는 성탄절을 맞아 남과 북을 대표해 KNCC 김동완 총무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 강영섭 위원장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염원하

는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2002년 5월에는 조국통일기도동지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합동으로 '조국평화통일기원 금강산남북공동기도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강영섭 위원장이 남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설교했는데, 이는 남북 개신교교류에 있어 처음 있는 일이었다.

6월에는 남측 기독교인 300명으로 구성된 한민족복지재단방북단이 6·15 남북정상회담 2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방북하여, 평양어린이심장병센터와 제1인민병원 소아병원을 둘러보았다.

이어 7월에는 한국 기독교계의 각 교단대표자,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관계자, 일본의 재일대한기독교회 관계자가 참석한 '제8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 동경회의'를 개최하고, 각 교단별 남북교회 교류협력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또한 동북아시아선교회·아세아선교회 등 교회 관계자들은 평양 봉수교회·칠골교회·가정교회에서 남북공동예배를 드렸다.

8월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8·15민족통일대회에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다.

2003년 1월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평양 신학원 신축 협력사업을 승인받아 그 해 9월에 642km² 규모의 2층짜리 새 교사를 건립, 이 사업을 완료하였다.

같은 해 3월 1~2일에는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남북 종교인들의 3·1민족대회가 열렸는데, 마지막 날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 서기장 등 북측 대표단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망교회에서 합동예배를 가졌으며, 11월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깊이보기 ⑤

3·1민족대회

2003년 3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3·1민족대회는 남측의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북측의 조선종교인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인데, 이 대회에 참가한 북한 종교인들이 소망교회, 명동성당, 봉은사, 천도교 대교당을 방문하여 종교의식에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은 남북 종교교류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이었다.

총회 통합 측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가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평양시 청류동 대동강변구역의 부지 600여 평(400평 규모의 온실과 200평 규모의 예배처소)에 교회를 짓기로 합의하고, 가칭 '평양제일교회'의 기공식을 가졌다.

2004년 3월에는 KNCC가 독일에서 개최된 독일교회 초청, 남·북·독일 교회 선교대회에 참석, 남북한간 선교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5월에 금강산에서 총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공동기도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말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대표 10명이 평양을 방문, 남북 개신교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2005년에 들어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평양 대동강 구역에 온실과 관리사무소 건축에 필요한 자재 등을 지원하고 관리동 2층에 평양제일교회를 설립, 예배처소로 활용토록 하였다.

동북아복지선교회는 평양 봉수빵공장에 냉동설

비를 지원·설비토록 하여 교인들에게 제공될 빵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식량지원을 통한 대북 선교 확대를 꾀했다.

2006년 6월에는 우리민족교류협회-한국교회 북한 방문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으며 평양적십자병원 등 관련 시설들을 방문했다. 당시 방문단을 만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위원장은 2007년 3월 말에 남북교회가 연합으로 평양의 류정정주영체육관에서 국제대성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같은 달 기독교대한감리회 서부연회는 6·15 민족화해주간을 맞아 금강산 해금강 호텔에서 제 2회 금강산 평화·통일 기도회를 열었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기도회 참가자들에게 “이번 기도회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데 이바지하게 되리라 믿는다”는 내용의 축하문을 보냈다.

같은 해 11월 말에는 30일에는 평양 만경대구역 건국동 봉수교회 건설현장에서 남측 봉수교회 상량예배 참관단 91명과 북측 기독교 관계자 4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봉수교회 상량감사에배가 열렸다. 이 예배는 분단이후 처음으로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이 대규모로 기독교인만을 초청해 예배를 드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이밖에 한민족남북한선교회는 봉수농장에 왜성 사과과수원을 조성해 주기 위해 사과묘목, 지주, 울타리시설 자재 등을 지원하였고, (사)기쁜소식은 낙후된 평양 봉수교회를 전면적으로 재건축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합의, 소요 자재 등을 지원했다.

특히 같은 해 10월에는 기독교 선교단체인 조국통일기도동지회가 평양 칠골교회에서 남북한 교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기도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평양에서 남북한 개신교인이 가진 첫 대규모 기도회였다는 점에서 남북 개신교 교류사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북한의 종교 실상과
남북 종교교류 전망



2. 불교 교류 현황

남북 불교교류 역시 1972년 남북관계 해빙과 더불어 물꼬가 트이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조선불교도연맹은 1974년 11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불교도평화회의(ABCP)에 조총련 소속 대표 정태성을 참가시켰는데, 이 회의는 '남조선문제에 관한 제3차 ABCP 특별보고'를 채택하기도 했다.

조선불교도연맹은 1976년 7월에 도쿄에서 개최된 제4차 ABCP 회의에서는 정식 회원단체가 되었으며, 이 회의가 한반도에 관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981년에는 불교대표단을 구성, 동남아의 불교 국가를 방문토록 했으나, 불교교류도 기독교교류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82년 8월에는 조선불교도연맹이 몽골에서 개최된 제6차 아시아불교도평화회의에 참가해서 한국문제에 대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는 데 적극 가담하였다.

1984년 4월에는 조선불교도연맹 제8차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남한과 해외 불교도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었고, 불교의 교리가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부합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1986년에는 소련의 불교대표와 중국의 불교대표를 평양으로 초청하였고, 조선불교도연맹이 네팔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불교도회의(WFB)에 참석, 정식 회원국이 됨으로써 국제적 활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는 바탕을 구축했다.

남북한 불교계의 접촉과 교류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열기로 통일논의가 무성해지자 더욱 본격화되었다.

1988년 3월에는 서울 개운사에서 대승불교승가회의 창립과 함께 통일문제위원회가 설치되었다.

5월에는 민족화합 공동 올림픽추진 불교본부가 결성되어 6월에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공동 올림픽 기원법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에 남북불자 공동기원법회를 동시에 개최하자는 서한을 보냈다.

‘7·7선언’ 이후에는 불교계에도 통일운동이 크게 확산되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8월에 조계종 전국신도회가 한국불교민족통일협의회 구성을 결의했고, 조계사에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불자공동기원법회가 개최되었다.

11월에는 26개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에 남북불교교류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1989년 6월에는 법타 스님이 조계종 승려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불교도연맹의 박태호 위원장 등과 남북해외불교교류 및 불교의 평화통일 기여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9월에는 한국 불교종단협의회와 남북불교도교류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10월에 열릴 한강연등대법회에 북한 불교계 대표 30명을 초청하였으나 무산되었다.

1990년 7월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8월 중 남북불교대표자회의를 개최할 것과 북한의 불교문화재 발굴 지원 및 세계불교도대회 동시참가를 제의했다.

1992년 2월에는 조계종뿐만 아니라 타 종단들도 참여한 가운데 범종단기구로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가 창립되었으며, 초대회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이 취임했으며, 9월에는 이 협회의 미주본부가 로스앤젤레스 관음사에 창립되었고, 북한불교지원 및 평화통일기원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1993년 7월에는 전국불교운동연합이 창립되었으며, 1995년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미주본부의 실무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불교도연맹과 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남북 불교교류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북한 측이 남한 불교도들의 통일투쟁 참여를 요구함에 따라 실무회담이 결렬되고 말았다.

1997년 4월에는 베이징에서 대북식량지원을 위한 남북불교 실무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조계종은 옥수수 1,380톤을 지원했다.

5월에는 서울 봉은사에서 북녘동포돕기 불교추진 위원회가 발족되었다.

6월에는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미주 본부와 조선 불교도연맹이 불교계의 남북교류합의서를 발표했으며, 12월 29일에는 두 단체 사이에 국수공장 설립합의서가 체결되었다.

1998년 3월에는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와 조선 불교도연맹이 남북한 불교교류와 금강산 문화재 복원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으며, 같은 해 9월 16일에는 두 단체 사이에 신계사 복원을 위한 협약서가 체결되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불교계가 남북불교도교류추진 위원회를 결성하면서 남북 불교교류가 더욱 큰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1999년 1월에는 범종교단체남북교류협의회가 창립되었으며, 4월에는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와 조선불교도연맹이 북경에서 남북불교회의를 개최했다.

6월에는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미주 본부가 세계 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북한여자축구단을 환영하는 만찬을 열었는가 하면,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방북대표단 4명이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의 공식초청으로 방북하여 남북 불교문화교류를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

같은 해 9월에는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 일행의 방북이 성사되어 북한지역 사찰 답사 등을 통해 남북불교도 간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11월에는 베이징에서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와 조선불교도연맹 간에 남북불교회의가 개최되었다.

2000년 3월에는 베이징에서 한국의 불교종단협의회와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대표단이 회담을 가졌으며, 같은 해 가을에 ‘민족 대단결과 통일을 위한 불자들의 역할’이란 주제 하에 양측의 공동주최로 남북한 불교도 통일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보기도 했다.

한편 55주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에는 남북한 각지 사찰에서 ‘남북 불교도 8·15 동시법회’가 열렸으며, 남북 공동발원문이 낭독되고, 한국불

교종단협의회 회장이 보낸 인사말이 전달되었다.

2001년 5월에는 석가탄신일을 맞아 남북한의 주요 사찰에서 조국통일기원 동시법회가 열렸으며, 통일의지가 담긴 남북 공동발원문이 낭독되었다.

6월에는 일제히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다짐하는 법회가 열렸다. 각지 사찰에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와 각도·시·군 위원회 불교관계자와 해당 사찰 스님들이 참가했다.

이 밖에도 8월에는 평양 8·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불교도들이 묘향산 보현사에서 공동법회를 올리는 등 남북 불교교류가 계속되었다.

2002년 4월 말부터 5월 초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실무대표단이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호 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 ‘조국통일기원 북남불교도 공동발원문’을 채택하고 석가탄신일을 맞아 남북의 모든 사찰에서 봉독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북한에서는 5월 19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조국통일기원 북남 불교도 동시법회’가 각지 사

찰에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산하 각 도·시·군 위원회 관계자, 사찰 주지와 승려,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각 법회에서는 남북 공동 발원문이 낭독된 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이 보낸 인사말이 전달되었다.

6월에는 6·15 공동선언 발표 2주년을 맞아 조국통일기원 남북 불교도 동시법회가 서울의 조계사와 묘향산의 보현사 등 남북한의 주요 사찰에서 개최되었다. 예식에 이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의장이 보낸 인사말이 전달되고 공동발원문이 낭독되었다. 8월에는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이 8·15 민족통일대회 참석차 서울을 방문했다.

2003년 3월에는 남북 종교인들이 참가한 '3·1 민족대회'가 열렸는데, 마지막 날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관계자 등 북측 6명과 남측 불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봉은사에서 합동법회를 열었으며, 7월에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단청문화 전시회 및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고, 8월에는 북한 사찰 법운암 시범 단청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59개 사찰에 필요한 단청 재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천태종은 2003년 8월 북한 영통사복원위원회와 2005년까지 개성 영통사 복원을 남북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키로 합의하였으며, 영통사 복원에 필요한 기와 26만장을 경의선 육로를 통해 지원하였다.

2004년에는 조계종이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는데, 11월에 남측의 조계종 관계자와 불교신자, 그리고 북측의 조선불교도연맹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공동으로 대웅전 낙성식이 개최되기도 했다.

2005년 10월에는 남북한 불교계가 공동노력을 한 결과,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방치돼 있던 임진왜란 시 의병장 정문부 장군의 승전기록이 담긴 북관 대첩비를 반환받을 수 있었다. 이 비는 북한 측과 합의한 대로 2006년에 원소재지인 함북 길주로 보내져 복원되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영통사 낙성식이 남북의 불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는데, 이 복원사업은 2년여에 걸쳐 북측에 기와, 단청 안료 등 자재를 20여 차례에 걸쳐 지원을 하면서 남측의 300여 명의 스님과 불자들의 방북을 가능케 하는



사진 12-금강산 신계사 복원 남북공동낙성법회장면

등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2006년 10월에는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가 평양에서 건설중인 불교복지시설에 사용될 7만 달러 상당의 건축자재를 지원했다. 이 같은 대북지원은 그간의 생필품 위주의 지원과는 달리, 복지시설 건립에 따른 자재지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11월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유영선 위원장을 비롯하여 남

측의 300여 명의 불자들과 북측의 200여 명의 불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남측의 ‘금강산 신계사 복원 추진위원회’와 북측의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가 주최한 신계사 복원 남북공동낙성법회가 봉행되었다. 극락전을 비롯해 7개동의 전각이 완공됨으로써 옛 신계사의 모습을 완전히 되찾게 되었다.



북한의 종교 실상과
남북 종교교류 전망

3. 천주교 교류 현황

남북 천주교의 교류 노력은 한국 천주교회가 1984년 한국교회 창립 20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기념사업부 안에 북한선교부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물론 북한선교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후 천주교계는 북한과 직접 접촉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1984년에 고종욱 신부, 1985년에 지학순 주교의 방북이 각각 이산가족상봉 명목으로 성사될 수 있었다.

북한선교부는 1985년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주교회의 전국위원회 위상을 갖추게 되었는데, 북한교회의 재건과 선교기반 구축을 목표로 내세운 이 위원회는 산하에 통일사목연구소와 북방선교협의회를 두었다.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1980년대 이전까지 교황청이나 남한 천주교회의 접근 노력에 미동도 하지 않던 자세를 바꾼다. 예컨대, 북한

은 1987년 6월에 평양에서 개최된 비동맹특별각료회를 준비하면서 로마에 있는 세계식량기구(FAO) 북한대표부 대사를 통해 바티칸과 대화를 시도하였고, 대표단 파견을 요청하게 된다.

이러한 북한 측의 요청에 교황청은 주세페 베르텔로 몬시뇰과 서울대교구 사목연구실장 장익 주교를 옵서버로 참가시켰다. 당시 장익 신부는 조선기독교도연맹 사무실을 방문하여 북한 내 천주교 신자와의 만남을 요청, 5명의 신자를 만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북한과 교황청 사이의 관계개선 움직임이 힘을 받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1988년 6월에 조선천주교인협회를 결성하게 된다. 10월에는 한국의 장익 주교와 교황청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들은 10월 30일 저녁 미사와 11월 1일 성인의 날 대축일 미사를 봉헌했다.

한편, 1980년대에 북한선교위원회 외에 북한과의 접촉에 나선 천주교 기구로는 종교적인 차원에서보다도 민족통일을 더 앞세우며 활동했던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었다. 이 단체는 북한선교위원회

와는 달리 북한 교회의 특수한 존재양식을 받아들여 조선천주교인협회를 교류를 위한 상대로 인정했으며, 1989년에 두 차례에 걸쳐 문규현 신부의 방북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남한의 천주교계는 남북 천주교교류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북한선교위원회는 1991년 9월 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함께 도라산 전망대에서 평화통일 기원미사를 드리면서 평화통일 기원미사 합동봉헌, 남북한 합동성지순례 등 ‘대북제의 5개항’을 발표했다.

1992년 3월에는 동 위원회가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 명칭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변경하는 등 남북 천주교교류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였다.

1993년 4월에는 북한 측 조선천주교인협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4명의 북한 천주교 대표단이 일본 도쿄를 방문, 재일교포 신자들과 접촉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5년에는 민족화해 여건 조성과 대북 선교활동

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대교구에 민족화해위원회를 조직하고, 명동대성당에서 매주 화요일에는 민족화해 미사를 봉헌하였다. 이 위원회는 이후 전교구를 망라한 대북 선교활동 조직인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가 결성되는 모태가 되었다.

민족화해위원회는 1995년부터 미국과 중국에서 꾸준히 북한 천주교인과 접촉해 왔다. 첫 접촉은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남북해외 천주교인 뉴욕세미나’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분단 이후 처음으로 7명의 민족화해위원회 대표단과 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등 일행 5명이 첫 공식 접촉을 가지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라는 주제 하에 ‘조국통일을 위한 천주교인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1997년 6월에는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천주교인세미나’를 통해 두 번째 해외 남북천주교인 접촉이 이루어졌다. 당시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대표단 일행이 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 일행과 만나 남북한 천주교 신자의 상호방문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1998년 5월에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대표단이 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원회 초청으로 방북하여 남북 천주교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평양 장충성당에서 북한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접 미사를 집전하였다.

8월에는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방북하여 장충성당에서 8·15 성모승천대축일 기념미사를 봉헌했다. 당시 일행 중 문규현 신부가 북한 측이 주도한 8·15 통일대축전에 참가함으로써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9월에는 중국 대련에서 남북한 천주교인 접촉이 이루어졌다. 이 접촉에서 민족화해위원회는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 2000년까지 옥수수 1만 톤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옥수수 지원시 모니터링과 식량 도착 및 배급 과정에 대한 사진촬영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의향서를 얻어냈다.

2000년에 들어서도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대표단이 국제옥수수재단과 함께 북한 농업상황 답사 차 북한을 방문했으며, 7월에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대표단이 평

양, 평안남도 평원군 삼봉리협동농장, 황해도 신천군 백석협동농장, 평안남도 안주시 풍년동식량공급소를 방문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하얼빈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조선카톨릭교협회가 안중근 의사 90주기 남북공동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12월에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대표단이 방북, 평양과 황해도를 방문했다.

2001년 3월에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단이 북한 조선카톨릭교협회의 초청으로 대북 지원물품의 분배상황을 돌아보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으며, 장충성당에서 남북화해를 위한 미사를 봉헌했다.

같은 해 8월에는 평양 8·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남측 천주교 신자 23명이 북측 신도 80여명과 함께 장충성당에서 남측 축전추진본부 김종수 신부의 집전으로 공동미사를 가졌으며, 10월초에는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방북단이 북한 조선카톨릭교협회 초청으로 방북했다.

같은 해 11월 27일~12월 4일에도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방북단이 평양을 방문, 조선카톨릭교협회와 공동으로 한겨레성찬제, 안중근세미나 등을 개최하였다.

2002년 6월에는 천주교 수원교구 방북단이 북한을 방문, 양강도지역의 영농을 위해 경운기 200대와 농가 지붕에 사용하는 아연도금강판 18만㎡를 제공했으며 월드컵 공 2002개를 북한 어린이에게 전달했다.

8월에는 서울에서 열린 8·15민족통일대회에 조선카톨릭교협회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10월에는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단이 조선카톨릭협회의 초청으로 방북하여, 대북지원 모니터링 및 향후 대북지원 방안 등을 협의했다.

2003년 3월에는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남북 종교인들의 '3·1민족대회'가 열렸는데, 당시 서울을 방문한 장재언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평양 장충성당 신자 등 18명이 명동성당에서 드려진 남북 공동미사에 참가했다.

2004년 7월에는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조선카톨릭교협회와 창립 30주년 기념 남북공동미사를 평양에서 개최기로 합의하고 150여 명의 방북을 추진하였으나, 조문사태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2005년에 들어서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1월초에 인천항을 통해 30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조선카톨릭교협회에 전달했으며, 1월 말~2월 초에는 금강산에서 남과 북이 함께하는 평화통일 기원미사를 개최했다.



사진 ⑬-3 · 1민족대회 남북공동미사 장면 (2003. 명동성당)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3월에도 인천항을 통해 비료 400톤과 못자리용 비닐 13톤을 북한으로 보냈다.

같은 해 5월 말~6월 초에는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대표단이 방북하여 북한 측 조선카톨릭교회 협회 관계자와 만나 남북한 천주교 교류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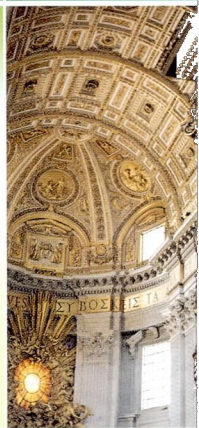
2006년 4월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방북단 61명이 동 위원회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국수공장과 어린이 영양제 생산시설 등을 모니터링하는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했다.

당시 북측은 영양제 재료와 국수제조용 밀가루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한 반면, 본격적인 천주교 차원의 교류나 상주사제 허용 문제 등 남측의 요청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시했다. 방북단은 장충성당을 방문, 정식 미사 대신 '말씀의 전례'를 올렸다.

주제가 있는 통일 문제 강좌 17

북한의 종교 실상과 남북 종교교류 전망

IV. 맺음말 : 남북한 종교교류의 과제



IV. 맺음말

남북 종교교류에 대해 남측은 남북한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축적하여 양측 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나아가 평화적인 민족통일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북측은 다분히 체제생존 전략에 이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남북 종교교류에 대해 남북한이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때로는 북측 종교단체의 실망적인 언행이 있었다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기능주의적 통합이론에 입각한 우리의 기대가 상당 부분 열매를 맺어온 것도 사실이다.

현행 북한 헌법은 종교건물 신축과 종교의식 허용 등 종교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당·국가의 엄격한 통제로 신앙과 관련된 종교의 자유는 크게 제약받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남북 종교교류가 활성화되어감에 따라 북한의 종교 현상은 종전과는 조금씩 다른 양태를 보여 왔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식량난 등 경제상황이 악화일로에 이르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종교단체들이 남북 종교교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측 종교인들의 빈번한 방북은 물론 공식적인 종교의식 거행과 종교시설 건립 및 복원 등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북한 종교의 질적인 변화까지도 일부 나타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과감한 체제변화를 모색하며 진정한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지 않는 한 종교개방은 미온적인 양상을 떨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 북한의 종교개방의 열쇠는 한국 종교계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이 점에서, 비록 더디기는 하겠지만, 한국의 종교계는 남북 종교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에 옮겨야 한다.

북한은 체제의 속성상 종교개방을 추진하는 데 주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경제난국 속에서 남한의 인도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종교계는 이 점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각 종단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에 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목표를 조정하고, 종단 간의 연대협력을 통한 효과 극대화방안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남북한의 종교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종교단체의 안정된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틀이 필요하다. 그것은 곧 남북 종교교류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 고태우, 『북한의 종교』(서울: 통일연구원, 1992).
- 김병로, 『북한사회의 종교성: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비교』(서울:통일연구원, 200).
- ,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서울: 통일연구원, 2002).
- ,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서울:통일연구원, 2002).
- 김홍수 외, 『북한종교의 새로운 이해』(서울:다산글방, 2002).
- 류성민, 『북한주민의 종교생활』(서울:공보처, 1994).
- 변진홍, “남북 종교교류의 현황과 과제:북한 종교의 현황과 남북 종교교류”,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제52차 종교분과위원회 발표문(2004. 10.26).
- 박승덕, “기독교에 대한 주체사상의 새로운 관점” 『주체사상과 기독교』(서울:신앙과 지성사, 1993).
- 박완신, 『북한 종교와 선교통일론』(서울:지구문화사, 1994).
- 신법타, 『북한불교연구』(서울:민족사, 2000).

참고문헌

- 양한모, 『민족통일과 한국천주교회』(서울:일선기획, 1990).
- 연합뉴스, 『2000 북한연감』(서울:일선기획, 1990).
 _____, 『2001 북한연감』(서울:일선기획, 2000).
 _____, 『2002 북한연감』(서울:일선기획, 2000).
- 윤 황, “북한의 종교정책과 종교실태를 통해 본 종교국가화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2호(2004).
- 전영선, 『다시 고쳐 쓴 북한의 사회와 문화』(서울: 도서출판 역락, 2006).
-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통일운동』(서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 통일부, 『2002 통일백서』(서울:통일부, 2002).
 _____, 『2003 통일백서』(서울:통일부, 2003).
 _____, 『2004 통일백서』(서울:통일부, 2004).
 _____, 『2005 통일백서』(서울:통일부, 2005).
 _____, 『2006 통일백서』(서울:통일부, 2006).
- 하종필, 『남북한 종교 통합방안』(서울:선인, 2005).
 _____, 『북한의 종교문화』(서울:선인, 2003).

주제가 있는 통일 문제 강좌 17

북한의 종교 실상과 남북 종교교류 전망